

해외 농가의 인터넷 이용과 우리 나라의 현황

현대 사회를 일컬어 정보화 사회라는 말로 표현한다. 이는 미래의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얻을 수가 있으며 또 이런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요즘 TV광고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것이 인터넷 관련 기업과 상품에 관한 광고들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았던 인터넷이 컴퓨터의 발달과 네트워크 환경의 발달로 인해 그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 속도를 보면 99년 10월에 600만이던 인터넷 이용자가 올해 4월에는 1,456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지수도 세계 10위 군에 들어갈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성격에 잘 맞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터넷에 우리 농업인들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전산원의 인터넷백서 2000년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0.5%만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사원이나 학생들의 42%에 비하면 농업인들의 인터넷사용은 너무나 미미하다. 양돈인들의 경우는 조금 나은 것이라 생각한다. 농업중에서도 정보화가 가장 잘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것을 그 동안의 현장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생활과 농사현장에 자리잡아 가고 있는 인터넷을 우리 양돈인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자.



최영찬
(서울대학교 부교수)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먼저 인터넷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인터넷은 전세계의 수많은 전산망(network)이 서로 연결된 "전산망의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방대한 양의 자료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 정보의 보고, 정보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터넷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재정 지원으로 국책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소간의 정보와 자료 교환을 위해 개발되었고 그 후 통신기기, 단말기, 컴퓨터 등의 발달을 통해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94년 6월 한국통신이 인터넷 상용 서비스를 개시해 인터넷 대중화가 실현되었다.

초기의 인터넷은 문자위주로 사용도 불편하였지만,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보급되면서 제공하는 정보도 소리, 동영상, 그래픽으로 발전했으며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 및 화상통신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2.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

국내의 인터넷 이용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의 이용목적은 자료검색이 6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오락, 채팅, 이메일 전송의 순으로 나타난다. 양돈인들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양돈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첫 째로 양돈에 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찾아보는 검색 기능일 것이다.

그 동안 각종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작목별로 특화되어 있지 않아 정보검색에 익숙하지 않은 농민들의 경우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 왔으나 최근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작목별로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다행이라 하겠다. 양돈협회나 도드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양관리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양돈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이용하여 돼지, 돈육 등은 물론, 양돈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시설, 인력 등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참고로 도드람의 경우 홈페이지에 복덕방 기

능을 두어, 양돈인들이 돼지, 농장, 시설, 인력 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각종 서비스나 업무처리를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예컨대 증권거래 및 은행업무 등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자메일(e-mail) 기능을 활용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편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와 파일을 다운로드(download)받거나, 유즈넷 뉴스(Usenet news)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외국의 양돈농가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정도는?

외국의 양돈농가들의 인터넷 활용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해외 양돈 관련 사이트를 방문하여 몇몇 사이트에 전자메일을 통해 양돈농가들이 컴퓨터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은 얼마나 사용하며, 그들이 원하는 정보는 어떤 것인가를 물어 보았다.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의 Moeller 교수가 보내온 답장이 우리 양돈농가들에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 같이 여기에 소개한다. Moeller 교수에 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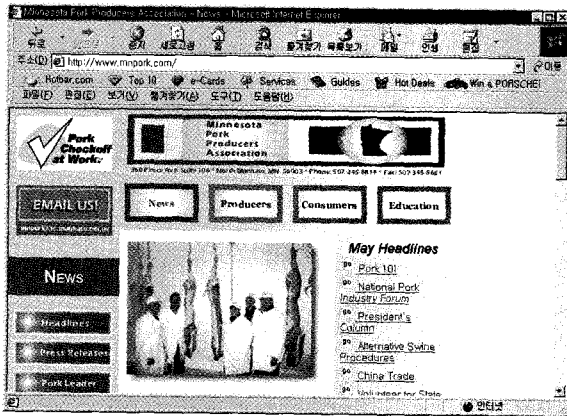
면 미국 양돈 농가의 50%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 농장 경영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농가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산과 경영에 관한 자료를 기록 및 분석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들 농가들이 전체 생산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농가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50% 이상이 농가경영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양돈 농가들이 원하는 정보는 양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정보들이며 최근에는 투입재에 대한 정보와 직거래(direct marketing)에 관한 정보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국내의 양돈 관련 웹 사이트의 상당수가 사료회사나 약품회사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중앙단위, 지역단위 협회(Council)에서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지도센터(Extension service)에서 양돈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 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양돈생산자 협회(National Pork Producers Council, <http://www.nppc.org>)의 웹 사이트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정보로 각종 요리에 대한 조리법, 영양과 건강,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으며, 생산자를 위한 정보로 가격정보, 시장정보, 환경, 품종개발, 육질, 사양정보, 각종 교육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양돈 산업에 대한 정보로 각종 기사나 보고서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사, 부모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 양돈 박람회(World Pork Expo)에 관한 정보로 각종 이벤트, 교통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필자가 인상 깊게 방문했던 웹 사이트로는 웹 사이트 상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swineonline.com>)로서 그래픽 기반이 아닌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다소 엉성하고, 빈약해 보이기 는 하지만 청소년들과 돼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웹 사이트였다.

위에서 말한 중앙 단위의 생산자 단체 외에도 각 주(state) 별로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여 자체적으로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지역 양돈 농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몇 개의 예를 들면, 미네소타 양돈생산자협회(<http://www.mnpork.com>), 미주리 양돈생산자협회(<http://www.mppa.net>), 뉴 햄프셔 양돈생산자협회([\[nhpork.org\]\(http://www.nhpork.org\)\), 오하이오 양돈생산자협회\(<http://www.ohiopork.org>\), 오클라호마 양돈생산자협회\(<http://www.okpork.org>\)등을 들 수 있다.](http://www.</p>
</div>
<div data-bbox=)

다음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웹 사이트 중에서 인상 깊은 사이트는 North Carolina 대학 농촌지도소(<http://mark.asci.ncsu.edu>)에서 구축한 웹 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 사이트는 미국의 다른 이용자들을 위해서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한글로 안내문이 출력된다. 또한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이 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양돈에 관한 지식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으로는 양돈 프로그램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그챔프(PigChamp)의 홈페이지(<http://www1.umn.edu/pigchamp>)인데 미네소타 대학 웹 사이트 내에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피그챔프 사용법과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그챔프를 사용하는 농가들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자료의 공유를 하고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웹 사이트로는 US pork(<http://www.uspork.org>)의 웹 사이트였는데 한국, 중국, 일본, 스페인의 양돈 시장을 겨냥하여 각국의 언어별로 매뉴얼 및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다.



▲ 미네소타 양돈 생산자협회 홈페이지

이렇듯 해외 양돈 농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 역시 인터넷을 통해 쉽게 돼지와 양돈 산업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 국가, 지방단체, 학교,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대상자에 따라 분류하여 누구나 쉽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도 폭넓다.

4 우리 나라 양돈농가의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을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인터넷 접속환경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초고속 전산망 사업을 통해 모든 지역에 대한 전산망 보급에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인프라(Infra)를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

가?

우리 나라의 경우 초고속 통신망 사업을 하면서 농촌 지역을 포함시켰다 제외시켰다를 거듭하다, 이제 읍면지역까지 ADSL과 같은 전용선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면단위 이하 지역도 2001년 이후 소형 DSLAM 상용장비를 개발·보급하여 수용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보다 통신환경이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 필자도 양돈 농가에 방문하여 모델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적이 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웹에서 한 페이지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서 봐야 한다. 그나마 접속을 위한 설정 또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우리나라 양돈 농가들의 인내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돈 관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또한 빈약하다. 양돈 전문 사이트도 많지 않

다. 즉 아무리 인터넷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아니겠는

고, 구축되어 있는 웹 사이트들 또한 사료회사, 동물병원, 약품회사 등의 웹 사이트에 일부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렵사리 양돈 농가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쇄심을 가지고 얻은 정보들이 부실하다면 농가들의 심정은 허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아피스(www.affis.net)와 같은 기관에서 농가들의 인터넷 접속환경을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전력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환경에 관한 산학협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수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므로 인터넷 접속환경은 점점 개선될 전망이다.

5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돈 농가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먼저 정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왜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양돈인 스스로가 느껴야 하며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농장을 관리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로 컴퓨터와 친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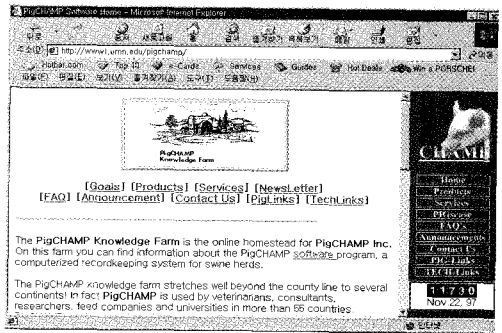
야 한다. 미국의 경우 양돈 농가의 50% 정도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양돈 농가에 대한 컴퓨터 보급률은 그 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대부분이 자녀 교육용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에 익숙해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농장의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 기록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를 억지로 사용하기보다는 친숙한 농장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활용함으로써 컴퓨터와 친해질 수 있다. 컴퓨터와 익숙해지기만 하면 인터넷 이용은 아주 쉽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양돈 농가의 경우 50% 이상이 컴퓨터를 통해 농장을 경영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의 농가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소비자와의 직거래 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양돈농장 관리프로그램 교육차 농장을 자주 방문하였고 대부분의 양돈인들은 컴퓨터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럴 때 필자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한다. “컴퓨터는 쉼 줄 알면 반을, 거기다가 쉼 줄만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 컴퓨터는 절대로 어렵거나 만지면 다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컴퓨터의 전원 버튼을 눌러 보라. 얼마나 쉬운 일인가!

세 번째로는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는 일이다. 개별 농가에서 웹 사이트를 구축하고 그 웹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미가 없다. 생산자 단체를 조직하고 돈을 브랜드화 해야 하며 단체 차원의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품과 단체에 대한 홍보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양돈 농가들에게는 정보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도드람 축협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도드람이라는 생산자 단체를 만들고 그 웹 사이트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도드람 조합을 홍보하고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에게는 농장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우리 나라 농



▲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그챔프의 홈페이지

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병폐인 유통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며 이런 인터넷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 접속환경을 개선하고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다 하여도 양돈인들 스스로가 깨닫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인터넷이 이끌어 나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적 문화적 조류속에 우리 양돈인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하고 그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컴퓨터를 켜고 무한한 인터넷의 세계로 날아보기를 바란다. **양돈**